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18일 제2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9월 1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차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연구과제 진행상태에 대한 중간점검 및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제1차 연구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한 2015년도 기본과제 7개와 수탁과제 1개에 대한 연구원 발표와 심의위원들의 세심한 평가가 진행됐다.

대상 연구과제는 △기계설비건설업 산업동향 분석 △기계설비건설업체 부도예측모형 연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녹색기술 기준에 근거한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과제 연구 △대용량 지열설비 이용을 위한 지중열교환기 용량 틀 개발 △기계설비 배관 및 장비 단열 기준 연구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

연구(수탁과제) 등으로 각 과제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기계설비건설업 관련법규 개선방안 연구’를 대한설비공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화재안전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성 향상기술개발’ 등의 2건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심의는 차기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철 심의위원(조합 기획조정실장)은 과제 진행시 제안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한화택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설비 전 분야에 대해 폭넓게 접근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를 연구원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정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안하여 함께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연말에 훌륭한 연구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18일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플랜트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 연구 최종발표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9월 1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고용 개선연구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변동주 위원장, 이계영·이규식 부위원장과 송기영·신윤하 명예위원장 등 플랜트 간사를 비롯해 협회·조합 임원과 서울과학기술대 장현승 교수(한국건설관리학회)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오치돈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플랜트 건설현장의 인력활용 실태조사 결과와 플랜트 현장 기술정보유출 및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 보호와 관련된 오해를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또한, “인력수급 부족과 심각한 고령화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심각해지는 플랜트 현장의 인건비 폭등, 생산성 저하, 재해율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랜트 현장의 안정적인 건설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허용에 관한 제도개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코자 지난 4월 29일부터 5개월간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플랜트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이번 발표회를 끝으로 최종 결과보고서가 10월 중 발간될 계획이다. 